

40대 초반의 회사원인 김아무개씨는 최근 두달 사이에 몸무게가 15kg이나 빠져 병원을 찾았다. 진찰 결과 목밑샘(갑상선)기능항진증이였다.

술과 담배를 많이 해 건강검진에서 간기능이 나쁜 것으로 나왔지만 특별한 이상증세가 없었던 그는 처음에 암인지 모른다는 걱정뿐이였다. 암의 특징적인 증상이 급격한 체중감소이기 때문이다. 다행이라고 생각하던 즈음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다가 하체에 힘이 빠지면서 주저앉는 일이 일어났다. 진단이 잘못된 게 아닌가 싶었지만 이 또한 목밑샘기능항진증에 걸린 20~40대의 동양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증상의 하나인 것을 알게 됐다.

둘째아이를 낳은 뒤 석달쯤 지난 임아무개(33)씨도 열흘 동안 몸무게가 4kg이나 줄고, 머리카락이 몽텅몽텅 빠지는데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증상에 시달리다가 산후 갑상선기능항진증 진단을 받았다.

목밑샘 기능항진증은 여성 인구의 2~3%가 걸리는 흔한 질병이다. 발생률이 남성의 8배나 된다. 유전성이 강해 가족중에 환자가 있으면 걸릴 확률이 높지만, 지나친 스트레스도 이 병을 일으키는 주범이다.

이현철 연세대 의대 내분비내과 교수는 "환자들 대부분은 2~3개월전 계돈을 떼었거나 가정불화 또는 승진대상에서 누락되는 등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한 발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된 증상은 특별한 이유 없이 몸무게가 줄고, 가슴이 뛰며, 땀이 나고, 손발이 떨리는 것이다. 추위를 견디지 못하는 목밑샘기능저하증과 반대로 여름 더위를 참지 못한다. 불안·초조에 빠지며 신경질도 늘어 우울증등 정신병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다. 집중력이 떨어져 아주 산만해지기 때문에 수험생의 성격이 갑자기 떨어질 때도 이 병을 의심해야 한다.

젊은 사람은 눈이 나오거나 목부분이 볼록

하게 나와 겉으로 구분하기 쉬운 사례가 대부분이지만 50~60대 노인은 외형적인 변화가 없이도 증세가 나타나 심장병이나 신경과 질환으로 잘못 알기 쉽다.

이 질환은 뇌하수체에서 분비하는 목밑샘자극호르몬이 목밑샘 조직에 있는 갑상선세포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일어난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없는 자가항체가 생겨 목밑샘자극호르몬 대신 갑상선세포와 결합해 무제한 목밑샘호르몬을 분비하게 하는 때문이다.

이런 과정이 진행되면서 원래 30~40g정도인 목밑샘 조직이 60~80g까지 커진다. 1백g 이상 커지는 경우도 있다.

여성은 산후 5~6개월 뒤 대개 목이 커지거나 피곤해지며 몸이 땀땀하게 붓는 목밑샘기능저하증에 걸리기 쉽지만, 산후 2~3개월 안에 목밑샘 기능항진이 나타나기도 한다.

치료법은 항갑상선 약물을 처음 한두달 동안은 다량 써 목밑샘호르몬 분비량을 뚝 떨어뜨린 뒤 용량을 차츰 줄여나가는 약물요법과 비대해진 목밑샘 조직을 6g정도만 남기고 떼어내 목밑샘호르몬 분비량을 떨어뜨리는 방법, 요오드 방사성동위원소를 복용케 하는 방사능 요법 등이 있다.

약물요법은 최소 2~3년간 계속 해야하는데 완치되어도 2~3개월 안에 재발할 확률이 50%가 넘는다.

또 약의 용량이 너무 많아지면 목밑샘기능저하증으로 바뀌어 살이 찌거나 기억력이 없어지며 머리 회전이 둔해져 말도 느려진다.

그러나 목밑샘기능저하증이 치료하기가 더 쉬운 반면, 목밑샘기능항진증은 치료가 까다로워 수술요법처럼 환자를 아예 목밑샘기능저하증 상태로 만들어 놓고 치료하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의사에 따라 이 세 방법이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특히 환자가 수술을 기피하는 등 환자의 선호에 따라 신축적인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주로 동위원소를 이용한 방사능 요법을 쓰고 있다.

한겨레신문 96/11/05